새 사람 New Human Being

(호세아서 11:1-9, 골로새서 3:1-11, 누가복음서 12:13-21)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충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었다면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면 더 이상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오른 쪽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새 사람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옛 사람의 존재, 옛 사람의 행실을 과감히 떨쳐버리라고 충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격분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도 말고 그들의 풍성한 삶을 훼방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이, 종과 자유인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충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우리는 옛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의 영광스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용하도록 우리를 비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겸허히 돌아보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것은 같은데,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 사람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끊임없이’라는 말 한마디가 핵심적인 단어로써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만일 이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리무중 가운데서 헤매거나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허우적대는 상황에서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옛 사람으로부터 영광스런 새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옛 사람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비결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탐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자신의 형제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을 증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의 재산상속과 관련해서는 율법에 의지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가 형이라면 동생보다 두 배를 더 상속하면 되고, 그가 동생이라면 형의 반을 상속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상속할 그 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께 와서 형제의 통이 큰 양보를 증재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포함한 무리에게 “온갖 탐욕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 ‘플레오넥시아스’라는 희랍어는 ‘더 많은’과 ‘소유하다’는 두 단어를 모아 만든 합성어입니다. 현재의 소유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더’ 소유한 상태가 되면, 그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소유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소유하기를 계속 원하지 않을까요? 과연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탐욕이 그에게서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오거나 할까요?

율법대로 적용하면 형제는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대립하거나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께 온 사람이 형이었다면, 그는 동생의 두 배나 상속했기 때

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의 상속받은 재산에서 '조금 더'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께 온 사람이 동생이었다면, 그는 형의 반이라도 상속했기 때문에 차남으로서 가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것을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두 배를 받은 형의 재산에서 '조금 더'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찾아온 사람의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배가 터진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개구리와 새끼 개구리들이 황소를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황소를 본 새끼 개구리들은 황소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도 크다고 말했지만, 새끼 개구리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자기를 '조금 더'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배를 부풀리다가 결국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를 찾는 유혹이 탐욕인데, 탐욕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솝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는 탐욕을 따른 형제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외면한 채 고삐가 풀린 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고, 주변에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자신의 집까지 방문하시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탐욕을 당장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조금 더'의 탐욕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차고 넘침에 달려있다고 여기지 말고, 생명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세끼 음식을 먹으면 죽고,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세끼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십만 원을 지급하고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천원을 지급하고 먹을 수 있지만, 식사비의 많고 적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별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끼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적게 먹어 영양실조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현대인의 경우 대개는 너무 많이 먹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또는 경험적으로 보나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차고 넘침에 달려 있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겠다는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가질 수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고 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차고 넘치게 가지면 행복할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재산을 많이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아니 가난해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여행하신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여행 할 때 만났던 거지들의 순진무구한 눈을 기억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인도를 방문해서 다시 그들의 눈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걸을 거절당하면서도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고, 선량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구걸하며 살아갈망정 그들은 행복해보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느 기관에 2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돈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고 했고, 여생을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세세히 소개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 세브란스에서 봉사하는 외형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칠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차고 넘치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면 사기를 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소유가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처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차고 넘치게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소작농으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던 바흠이라는 하인이 어찌어찌해서 소지주가 되었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다가 가진 땅을 처분한 후에 전혀 새로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000루블을 내면 하루 종일 다니며 표

시한 모든 곳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너무 넓은 지역을 표시한 후에 원위치로 급하게 달려오다가 숨이 막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흐는 자신이 매장될 2m 정도의 땅만 있으면 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규정되지 않고, 그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사느냐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서 지금의 창고로는 더 쌓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궁리합니다. “내 공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자의 궁리를 보면, 내가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출, 내 공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당장 거두신다면, 그 모든 소출과 그 모든 궁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교훈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희랍어 ‘아프론’은 생각이 없는 자, 무분별한 자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소출을 쌓겠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벌어들인 돈 다 소비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소비할 것을 남겨두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내일이 1년이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내일이 10년이며, 어떤 사람에게서는 내일이 100년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스케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을 뿐 스스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우리는 내일을 자신의 시간인 것처럼 오해하고,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내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은 재물을 쌓아 두면, 그의 고민이 사라질까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라 착각하고 함부로 해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동안 우리는 생명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거두실 때 순종하며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두심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출 역시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소출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만큼 응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질의 소유에 있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니까?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의 많음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럴 듯하게 꾸며주는 포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창고에 채워야 할 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시도 잊지 말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살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